



건강보험 40년의 주요 지표

이상아^{1,2} · 박은철^{2,3}

¹연세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 ²연세대학교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 ³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Main Indicators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during 40 Years

Sang Ah Lee^{1,2}, Eun-Cheol Park^{2,3}

¹Department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²Institute of Health Services Research, Yonsei University; ³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This year marks the 40th anniversary of the introduction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which has contributed to improving public health and accessibility. This article aims to show the trends of main indicators during the last 40 years. NHI has achieved rapid expansion of target population (1977-1989). The percentage of population covered increased from 8.8% in 1977 to 94% in 1990. The average number of visit days per person was 0.75 in 1977 but significantly increased to 31.11 in 2015. In 2015, NHI revenues were 52.4 trillion won and expenditures were 48.2 trillion won which is 9.5 times and 9.6 times higher than in 1995. NHI achieved universal coverage in short period of time and has contributed to improving the healthcare status. However, there still remain problems including low-benefit coverage and high out of pocket money. Therefore, the effort to reform these problems is needed.

Keywords: National Health Insurance; Universal coverage; Sustainability

서 론

2017년은 우리나라에 건강보험이 출범한 지 40주년이 되는 해이다. 우리나라에 건강보험이 도입된 것은 1977년이며, 1963년에 임의 적용방식의 의료보험법이 제정되고, 1965년에 의료보험조합을 설립한 것을 배경으로 1977년 7월, 500인 이상 상시 고용사업장에 당 연적용방식의 직장의료보험 시행을 통해 건강보험이 출범하였다. 그 이후 1979년 300인 이상, 1981년 100인 이상, 1983년에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그 폭을 넓혀나가 1989년 7월, 도시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포함하면서 전 국민 의료보장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독일의 경우 의료보장 시행 이후 127년, 벨기에의 경우는 118년, 오스트리아 79년, 일본 36년이 소요된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12년 만에 전 국민 의료보장을 달성하는 괄목적 성과를 이루었다[1].

이와 같이 지난 40년간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단기간(1977-1989년) 내에 전 국민 건강보험을 이루어냈

으며, 지역가입자까지의 확대를 포함한 적용인구 확대를 통해 보편적 의료보장을 달성하였다. 또한 의료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등의 성과 역시 달성하였다.

따라서 지난 40년 동안 건강보험 적용대상자와 사업장의 수 등의 적용대상 수의 변화와 보험료와 정부지원금 등의 수입 관련 추이 변화, 그리고 지급건수와 총 급여비 및 진료비 등의 지출 관련 추이의 변화를 1977년, 1990년, 2005년, 그리고 2015년의 자료를 사용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자료원 및 관련 지표

건강보험 관련 통계들의 추이를 알아보기 위해 통계청 홈페이지 내의 통계표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의 ‘통계로 본 건강보험 30년[2],’ ‘국민건강보험 40년사[3],’ ‘2015 건강보험주요통계[4],’ 그리고 ‘2015 건강보험통계연보[5]’를 사용하여 통계자료들

Correspondence to: Eun-Cheol Park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50-1 Yonsei-ro, Seodaemun-gu, Seoul 03722, Korea

Tel: +82-2-2228-1862, Fax: +82-2-392-8133, E-mail: ecpark@yuhs.ac

Received: September 20, 2017 / Revised: September 26, 2017 /

Accepted after revision: September 28, 2017

© Korean Academy of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을 추출하였다. 1977년의 자료가 있을 시 해당연도의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없을 시에는 가용 가능한 가장 오래된 연도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전 국민 건강보험이 실현된 1989년 바로 다음 해인 1990년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2005년, 그리고 가장 최근 자료인 2015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지표와 관련하여서는 우선 건강보험 보장성의 추이를 보기 위해 적용인구 및 적용사업장 수의 추이 변화를 보았다. 그리고 수입 관련 변화를 보기 위해 세대당 보험료, 1인당 보험료 등 보험료 변화를 보았으며, 지역고고지원금 및 담배부담금 등의 정부지원금 추이도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지출 관련 추이를 보기 위해 지급건수, 급여비 및 1인당 내원일수, 1인당 진료비, 내원일당 진료비 등의 진료비의 변화를 보았다.

건강보험 도입 이후 40년간 추이 변화

1. 건강보험 적용인구 및 적용사업장 현황

1977년 건강보험 도입 이후 적용인구는 320만 명으로 시작하였으나, 1989년 전 국민 건강보험 시행 이후에는 8배 이상 증가하여 4,018만 명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었다(Supplementary Table 1). 1977년(전국민구수: 3,600만 명)에는 500인 이상 상시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만 적용대상이어서 전 국민의 8.8%만 보험 혜택을 받았지만, 전 국민 건강보험 시행 이후인 1990년(전국민구수: 4,200만 명)에는 전 국민의 94%까지 보장을 받게 된 것이다. 그 후로 적용인구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 5,049만 명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았다. 적용사업장의 경우 1977년은 500인 이상 상시 근로사업장만 대상이었기에 7,523개소가 적용대상 사업장이었다. 그러나 적용인구와 마찬가지로 전 국민 건강보험 시행 다음 해인 1990년에는 12,923개소로 16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리고 2001년 이후에는 5인 이하 사업장까지 적용사업장으로 지정되면서 그 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2005년에는 222,859개소가 적용사업장이었으며, 2015년에는 1,465,354개소가 건강보험 적용사업장이 되어 10년 전인 2005년에 비해 7배 이상 증가하였다.

2. 건강보험 수입 관련 추이

1990년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의 세대당 보험료가 11,002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지역가입자로 9,121원이었고, 근로자가 7,598원이었다(Supplementary Table 2). 25년 후인 2015년에도 역시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이 가장 높은 보험료를 납부했으며, 133,912원으로 1990년에 비해 약 12.2배의 증가율을 보였다. 근로자의 경우 2015년에 94,880원으로 1990년에 비해 약 12.5배 증가하였으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2015년에 80,876원의 수준을 보였으며, 1990년에 비해 8.9배 증가하여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정부지원금의 경우 1990년 3,639억 원이었으며, 2015년에는 70,902원으로 약 19.5배 증가하였다. 담배부담금의 경우 2002년에 신설되어 그 이후의 정부지원금에 2005년 9,253억 원, 2015년 15,185억 원의 기여를 하였다. 담배부담금은 2005년과 2015년에 총 정부지원금의 21%~25% 정도를 담당하고 있다.

3. 건강보험 지출 관련 추이

1977년 지급건수는 884천 건이었으나 1990년에는 141,479천 건으로 약 160배 이상 증가하였다(Supplementary Table 3). 25년 후인 2005년에는 800,080천 건으로 1990년에 비해 5.7배 증가하였으며, 2015년에는 1,353,854천 건으로 2005년에 비해 1.7배 증가하였다. 총 급여비는 1977년에 45억 원이었으며, 1990년에는 19,032억 원, 2005년에는 179,886억 원, 그리고 2015년에는 433,449억 원의 수준을 보였다. 총 진료비의 경우 1977년에 74억이었으나, 1990년 29,419억 원으로 약 397배 증가하였다. 총 진료비는 계속 증가하여 2005년에는 247,967억 원, 2015년에는 579,592억 원이었다. 적용인구 수 증가와 이로 인해 증가된 의료이용량이 내원일수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이 현상이 지급건수와 급여비 및 진료비 모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4. 건강보험 재정현황

1995년 건강보험 수입은 5.44조 원 수준이었으며, 지출은 5.05조 원으로, 당기 수지는 0.38조 원이었다(Supplementary Figure 1). 2015년에는 수입이 52.4조 원으로 1995년에 비해 9.6배 증가하였으며, 지출은 48.2조 원으로 9.5배 증가하였다. 1995년과 2005년, 그리고 2015년은 수입이 지출보다 높았고, 각 해의 당기 수지는 0.38조 원, 1.18조 원, 그리고 4.17조 원이었다.

고 찰

이 글에서는 통계지표들을 통해 1977년 건강보험 도입 이후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40년 동안의 흐름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단기간 내에 많은 성장을 하였으며, 국민들의 건강수준에도 기여를 하였다[6,7].

통계 수치로 살펴본 우리나라 건강보험 40년 동안의 가장 큰 성과는 적용인구의 확대이다. 1977년 도입 당시 전 국민의 8.8%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았던 우리나라는 1989년 전 국민 건강보험을 실현하면서 전 국민의 94%가 보험 적용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적용인구는 점차 증가하여 2015년 기준 전 국민의 99%가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인구가 되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가 강조하고 있는 보편적 의료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UHC)의 한 축이라고 볼 수 있는 ‘적용인구(The population covered)’ 측면을 확보한 성과라고 볼 수 있다[8].

그러나 12년 만의(1977-1989년) 전 국민으로의 건강보험 확대는 건강보장에 큰 역할을 수행하였지만, 외적 성장에 따른 내적 부실이라는 문제점 또한 초래하였다. 우리나라는 아직 UHC의 나머지 두 축인 ‘의료보장성(the services covered)’과 ‘비용분담(the costs covered)’을 달성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로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의 문제를 들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비급여와 본인부담금의 증가 등의 문제에 직면해있으며[9], 특히 우리나라의 재난적 의료비 발생비율은 2015년 기준 2.88%였으며, 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들의 재난적 의료비 비율에 비해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추세이다[10,11]. 또한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는 1977년 도입 당시의 경제적 형편 및 사회에 맞게 구축된 건강보험이 저출산 및 고령화, 경제성장, 통일에 대한 대비, 비감염성질환 시대로의 변화 등의 경향에 맞게 건강보험체계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1,6,12].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도입 이후 40년간의 기간에 눈부신 발전이 있었지만,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 등의 문제가 남았다. 더 나은 건강보험이 되기 위해 직면한 문제점들을 개선해나가 실질적 의료보장을 실현할 수 있는 건강보험이 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1. Kang MS, Jang HS, Lee M, Park EC. Sustainability of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J Korean Med Sci* 2012;27 Suppl:S21-S24. DOI: <https://doi.org/10.3346/jkms.2012.27.S.S21>.
2.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Statistical booklet on 30-year-history of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Wonju: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2007.
3.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40-Year-history of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Wonju: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2017.
4.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Major statistics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2015. Wonju: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2016.
5.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National Health Insurance statistical yearbook. Wonju: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2016.
6. Lee KS. Achievements and challenges of 40th anniversary health insurance. *Health Policy Manag* 2017;27(2):103-113. DOI: <https://doi.org/10.4332/KJHPA.2017.27.2.103>.
7.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Development. OECD health data [Internet]. Paris: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Development; 2015 [cited 2017 Sep 10]. Available from: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HEALTH_STAT. Accessed 18th Sep, 2017.
8. World Health Organization. World health report 2010-health systems financing: the path to universal coverage.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0.
9. Jang SI, Nam JM, Choi J, Park EC. Disease management index of potential years of life lost as a tool for setting priorities in national disease control using OECD health data. *Health Policy* 2014;115(1):92-99. DOI: <https://doi.org/10.1016/j.healthpol.2013.11.007>.
10. Kim W, Park EC.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status and trend of Korea in 2015. *Health Policy Manag* 2017;27(1):84-87. DOI: <https://doi.org/10.4332/KJHPA.2017.27.1.84>.
11. Xu K, Evans DB, Kawabata K, Zeramini R, Klavus J, Murray CJ. Household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a multicountry analysis. *Lancet* 2003; 362(9378):111-117. DOI: [https://doi.org/10.1016/s0140-6736\(03\)13861-5](https://doi.org/10.1016/s0140-6736(03)13861-5).
12. Park EC. Presidential election and health policy. *Health Policy Manag* 2017;27(2):95-96. DOI: <https://doi.org/10.4332/KJHPA.2017.27.2.95>.

Supplementary Table 1. Population covered by National Health Insurance

구분	연도			
	1977	1990	2005	2015
적용인구(단위: 천명, %)				
적용인구 계	5,296	44,110	49,154	52,034
건강보험	3,200	40,180	47,392	50,490
직장가입자	3,140	20,759	27,233	36,225
지역가입자	1.65	2.19	1.79	1.30
의료급여	-	2.46	1.40	1.01
부양률(명)	-	3,930	1,762	1,544
적용사업장(단위: 개소)				
적용사업장 계	7,523*	123,923	222,859	1,465,354
직장	4,364*	116,707	212,636	1,450,293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3,159*	7,216	10,223	15,061

*적용사업장의 경우 1979년 자료이다.

Supplementary Table 2. Trends in National Health Insurance revenu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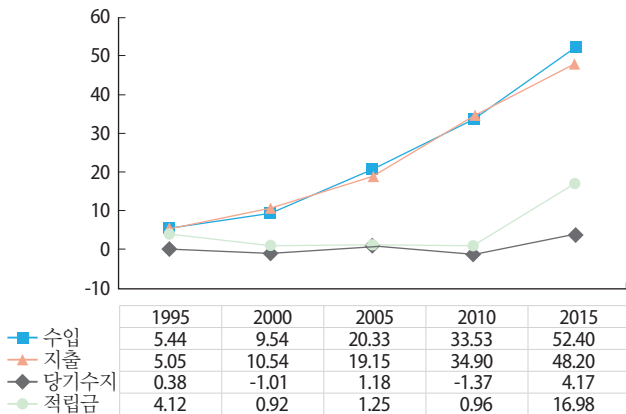
구분	연도		
	1990	2005	2015
월 보험료(단위: 원)			
세대당 보험료			
근로자*	7,598	50,034	94,880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11,002	69,250	133,912
지역가입자	9,121	46,871	80,876
1인당 보험료			
근로자*	2,483	18,999	43,085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2,892	18,440	41,543
지역가입자	2,609	19,237	42,798
정부지원금(단위: 십억 원)			
계	364	3,695	7,090
지역국고지원금			
계	364	2,770	5,572
관리재정	118	127	-
보험재정	246	2,643	5,572
담배부담금			
계	-	925	1,519
지역배분금	-	375	-
직장배분금	-	552	-

*본인부담 보험료로 전체 보험료의 50%이다.

Supplementary Table 3. Trends in National Health Insurance expenditure

구분	연도			
	1977	1990	2005	2015
지급건수(단위: 천 건)	884	141,479	800,080	1,353,854
총 급여비(단위: 십억 원)				
계	4.5	1,903	17,989	43,972
입원	-	-	5,277	17,333
외래	-	-	7,620	17,140
약국	-	-	5,091	9,500
총 진료비(단위: 십억 원)				
계	7.4	2,942	24,862	58,787
입원	2.9	1,035	6,585	21,178
외래	4.5	1,885	11,253	24,457
약국	-	22	7,023	13,152
1인당 내원일수(단위: 일)				
평균(약국 포함)	0.75	8.03	23.78	31.11
입원	0.11	0.62	1.32	2.65
외래	0.65	7.10	14.69	16.95
약국	-	0.31	8.78	9.61
1인당 진료비(단위: 천 원)				
계	2,317	73,218	524,593	1,164,328
입원	903	25,750	138,955	419,441
외래	1,414	46,917	237,451	484,393
약국	-	551	148,187	260,493
내원일당 진료비(단위: 원)				
평균(약국 포함)	3,076	9,121	22,064	45,374
입원	8,393	41,532	116,475	157,391
외래	2,190	6,607	16,801	28,589
약국	-	1,801	17,578	27,112

*1977년: 지급기준, 1990년, 2005년, 2015년 심사결정기준. †지급기준: 약국 포함.



Supplementary Figure 1. Trends in National Health Insurance finance (unit: trillion won).